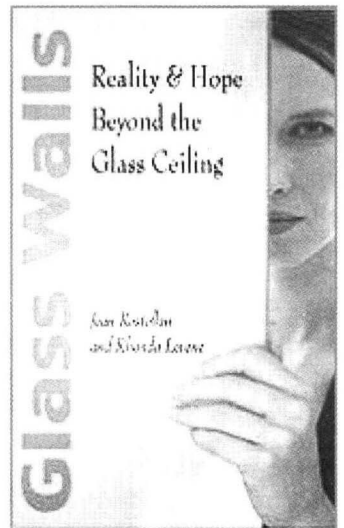


## 유리벽을 넘어 더 넓은 세상으로

원 제\_ (Glass Walls: Reality & Hope Beyond the Glass Ceiling)  
저 자\_ Jean Rostolan, Rhonda Levene  
출 판 사\_ Brown Books



요즘 우리 사회에 여풍(女風)이 거세다. 최근 들어 법조계, 의료계와 같은 전문직 분야에서 여자들의 비율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2007년도 서울대 합격자들 중에서 여학생의 비율이 처음으로 40%를 넘었다. 이를 바라보는 시각도 다양하고 이 현상을 낳은 요인에 대한 분석도 다양한 것 같다. 그러나 이런 기세가 쉽사리 누그러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있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양적인 팽창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질적인 향상으로도 이어지고 있을까? 여성의 사회 진출 역사가 오래되어 우리보다는 상황이 나을 줄로만 알았던 미국도 역시 이 문제로 고민 중인 것 같다. 그래서 《유리벽: 유리천장 이면에 감추어진 현실과 희망》(Glass Walls: Reality & Hope Beyond the Glass Ceiling, 2006년 6월)이라는 책이 나왔을 테니 말이다.

이 책은 임원직 여성의 39%가 기업 문화 때문에 퇴직을 결심한다는 자료를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한 잡지가 실시한 설문에 응답한 여성 임원들은 “자신들의 업무를 폄하하고 간섭이 심한 폐쇄적인 경영 스타일에 실망했다”는 답변을 했다. 이들은 모두 유리천장을 뚫고 기업의 최고 경영진까지 올라간 여성들이다. 남성들의 세계에서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해서 최고의 자리 혹은 그 근처까지 갔더니 생각지도 못한 벽이 있었다. 바로 유리벽이다. 여자 임원이라는 이유로 모종의 따돌림과 차별을 받는 것이다. 여자들의 열등감에서 비롯된 자기변명 아니냐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 책의 저자 진 로스톨란과 론다 르빈은 그렇지 않다고 자신한다. 자신들이 각종 기업에서 임원직을 두루 역임했고 다양한 분야의 여성 임원들을 인터뷰한 풍부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 책을 썼기 때문이다.

저자들은 여성 임원이 기업 내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유형의 직원들을 다섯 가지 카테고리인 가장(Patriarchs), 다이아몬드(Diamond), 씨앗(Seeds), 염탐꾼(Informers)와 아첨꾼(Corks)으로 분류한다. 모든

직원들이 적어도 하나 이상의 카테고리에 속하며 그 카테고리별로 대응 방법도 달라져야 한다. 살아남기 위해서 말이다.

‘가장’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용어는 남성들로만 이루어진 최고 경영진을 의미한다. 자신들게겐 없는 재능을 활용하기 위해 여성 임원을 선출하기는 했지만 결코 자신들의 영역에 여성을 허용하지 않는다. 다이아몬드는 최고의 도움을 주는 멘토와 같은 존재이다. 이 두 카테고리는 스펙트럼의 양 끝단에 위치하며 그 수는 상대적으로 매우 드물다. 특히 회사에서 다이아몬드와 같은 조력자를 찾이란 정말 힘들다. 직원들은 대부분 세 가지 카테고리에 들어간다. 염탐꾼은 여성 임원에 대한 정보를 가장에게 알려주는 직원들이다. 여성 임원을 폄하하는 공작도 서슴지 않는다. 아첨꾼은 말 그대로 가장이 추진하는 모든 정책을 지지하고 따르며 그들에게 무조건 ‘예스’를 외치는 예스맨 혹은 예스우먼들이다.

마지막으로 씨앗은 회사의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로 회사의 뿌리라고 할 수 있다. 저자들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라고 충고한다. 방법은 의외로 단순하며 정도를 견고 있다. 그들의 멘토가 되고 그들에게 모범을 보이려는 것이다. 이 책은 얇아서 군더더기가 없고 핵심만 잘 정리되어 있다. 유리벽 이론과 직원들의 다섯 가지 유형을 설명하고 카테고리별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존 전략도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사이사이에 양념처럼 들어간 사례를 통해 유리벽 이론과 그 벽에 부딪혔을 때 겪게 되는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다.

조선 중기 허난설헌은 또 다른 의미의 유리벽에 갇혀 재주를 펴지 못하고 27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허난설헌은 후에 그들은 벽을 뚫고 나와 제 꿈을 마음껏 펼치려 하고 있다. 이들의 앞에 유리벽이 아닌 꽃길이 펼쳐지기를 기원한다. **김순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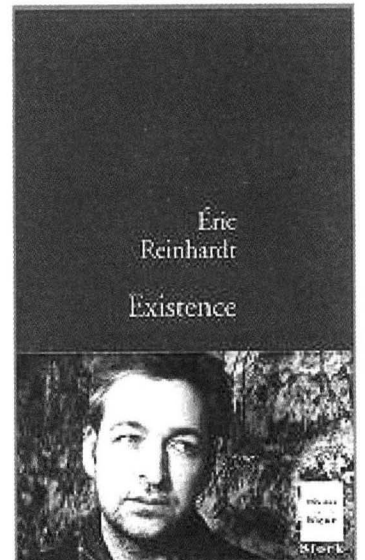
글쓴이\_ 이경애(번역가)

## 존재의 블랙 코미디, 실존의 로망 누아르

원 제\_(Existence)  
저 자\_에릭 레아르트(Eric Reinhardt)  
출 판 사\_Stock

“어느 날 갑자기 내 존재는 산산조각 나고 말았다.”

파리 이공과 대학을 차석으로 졸업한 엘리트이자 비트겐슈타인의 열렬한 신봉자로 논리에 죽고 사는 사십대 남자 장자크 카르통메르시에는 잘 나가는 대기업의 중간간부에서 하루아침에 실업자로 전락해 버린 사연을 이렇게 풀어놓기 시작한다. 발단은 ‘분티’라는 초코바. 아내도 자식도 아파트도 철두철미하게 논리적인 분석에 따라 장만(?)해온 장자크이지만 그가 쏟아내는 이야기는 논리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 ‘그 원수 같은 초코바만 아니었다면’이라는 뉘즈리를 끊임없이 되풀이하면서도 정작 어떻게 된 일인지는 속 시원히 털어놓지 않고 과거와 현재, 현실과 몽상을 넘나들며 이 이야기에서 저 이야기로 건너뛰는 장자크. 그의 입에서 산산이 부서져 내리는 이야기 조각들을 맞춰보면 지독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체제순응적인데다 자만심 넘치는 인간 혐오자가 모습을 드러낸다. 자신의 머릿속에서는 이 시대 최고의 엘리트이자 나무랄 데 없는 합리주의자이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아내를 종 부리듯 부리고 옆집에 사는 사람의 얼굴도 기억하지 못하며 퇴직한 노인 네쯤은 눈앞에서 죽어나가도 아랑곳하지 않는 ‘왕싸가지’인 장자크. ‘분티 사건’으로 두 가지 장자크 사이의 균열이 벌어지면서 그 존재는 서서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다. 사연인즉, 어느 날 점심 무렵 깐깐하기 짝이 없는 사장이 주재하는 회의에 불려간 장자크, 아무리 기다려도 사장이 오지 않자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 제과점에 먹음거리를 사러 가는데, 그날따라 길게 늘어선 줄 가운데 그의 뒤에 선 ‘결렬한 감동이 녀석’의 야릇한 시선에 시달리고, 오래도록 기다리던 끝에 점원에게 “분티 초코바 하나 주세요”라고 말하는 순간 그 ‘감동’의 영문 모를 폭소 세례를 뒤집어쓰면서 순식간에 줄선 사람들 뿐 아니라 그 일대를 지



나던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만다. 당황한 그는 허둥지둥 도망치듯 회사로 돌아오지만 사장은 이미 불같이 화를 내며 회의실을 나간 후, 오로지 장자크의 토끼무늬 넥타이와 초코바의 ‘분티’라는 상표명 때문에 미친 듯 웃어댔던 ‘감동’이 계속해서 스토커처럼 장자크를 뒤쫓는다. 그를 따돌리기 위해 변장까지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른 장자크, 기괴한 몰골 그대로 사장 앞에 나섰다 결정적으로 사장의 눈에 나 ‘모가지가 잘리’고... 드디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게 된 장자크는 그 시선들이 하나같이 자신의 ‘우월함’을 인정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비웃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제 난 안다. 인간이란 하나같이 자신만의 매혹적인 섬에서 저 혼자 살아가는 듯한 착각에 빠져 있다는 것을.”

이제, 온통 금 가고 벌어진 장자크 카르통메르시에라는 존재 속으로 그에게 무시당해온 존재들이 마구잡이로 침투해 들어와 그의 실존을 난장판으로 만들어놓는다. 아내와 자식들이 어디론가 떠난 후 쓰레기통이나 다름없어진 아파트처럼.

작가 에릭 레아르트는 장자크 카르통메르시에라는 사내의 몰락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 읽는 이를 혼란 속으로 몰아넣는다. 비트겐슈타인의 논리를 이리 비틀고 저리 비틀면서, 각양각색의 이야기들을 현재형으로 마구 뒤섞으면서, 다양한 포즈로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사진을 책갈피 사이에 드문드문 끼워 넣으면서, 어처구니없는 이야기의 발단에서 그보다 더 어이없는 이야기의 결말로 읽는 이를 이끌어가는 작가가 결국 하고 싶었던 말은... 혹시,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의 이야기가 되는 게 바로 우리네 존재라는 것?! **추천**

글쓴이\_ 김민정(번역가)

# 《배움에는 한계가 없다》

## 좋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천하는 로마클럽

원 제\_ *Wie wir Lernen wollen, Schule kann man aendern*  
 저 자\_ Axel Beyer 악셀 바이어  
 출 판 사\_ Murmann Verlag  
 출간연도\_ 2006년 9월  
 쪽 수\_ 163쪽



요즘 학생들에게 ‘학교’란 어떤 의미일까? 요즘 여러 가지 학교에 대한 우울한 소식들을 접하면서 자주 드는 생각이다. 교육의 목적이 오로지 입시에만 초점이 맞춰져있는 현 교육 시스템에 문제의 근원이 있는 것에 모두들 공감하지만, 학교를 믿지 못하는 아이들과 학부모들, 그리고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 것인지에 목표 의식을 상실한 선생님도 모두 피해자들일 뿐이다.

가해자 없이 피해자들의 한숨소리만 커져가는 형국이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하는 것인지 난감하다. 이미 수차례의 대수술로 엄청나게 난도질당한 중환자를 앞에 둔 의사의 입장도 이처럼 곤혹스럽지는 않을 것 같다. 요즘 한창 인기 있는 드라마, 《하얀 거탑》의 의사 장준혁도 이런 환자는 감히 손대지 않을 것 같다.

학교의 위기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우리 대부분이 교육 선진국이라고 부러워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도 이미 수 년 전부터 학교 교육의 개혁을 위한 목소리가 높아져만 가고 있다. 우리처럼 입시나 사교육과 관련된 문제와는 조금 성격이 다르지만, 이미 진정한 ‘교육’의 기능을 상실한 학교에 대한 비난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학교는 더 이상 즐겁지가 않다.

이러한 심각한 교육 위기를 염려하는 분위기 가운데 최근 독일에서는 한 지식인 집단이 주도하는 새로운 학교 시스템에 대한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 책은 그 지식인 집단이 일반 대중에게 공

개하는 희망보고서라고 할 수 있다. 이미 1972년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는 세계적인 지식인 집단 ‘로마 클럽’(The Club of Rome)은 항상 혁신과 새로운 발상의 중심에 서 있었다.

21세기에 들어서 로마클럽은 교육의 문제가 말로 전 세계적인 문제임을 지적하고, 세계의 네트워크를 통해 교육 혁신을 위한 아이디어를 실험하고 있는 것이다. 학생들도 부모들도 그리고 선생님들도 로마클럽이 주도하는 학교 시스템 하에서는 모두 행복하게 변할 수 있다고 하니 얼마나 기대되는 프로젝트인가? 아침에 일어나 학교에 간다는 기대감만으로도 행복해질 수 있다니, 상상만으로도 즐겁다.

로마클럽에 의해 운영되는 학교들은 아이들이 좋은 보조 교사들과, 좋은 선생님들, 그리고 더 좋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일깨워준다. 로마클럽에 의해 운영되는 학교는 르네상스 학교의 전통적이고 근본적인 이념을 중시하여, 암기보다는 음악과 스포츠가 새로운 교육의 커다란 두 기둥으로 작용하고 있다.

학교는 장기간의 조직적이면서도 과학적인 지원을 받는다. 독일 내에서 이미 11개 주에서 150여 개가 넘는 학교들이 로마클럽의 지원을 신청하고 있으며, 5개 학교가 이미 시범 운영 중에 있다. 로마클럽의 교육 개선 프로젝트 표어는 “배움에는 한계가 없다”(No Limits to Learning)이다. **김순철**

글쓴이\_ 홍순철(북코스모스 에이전시 대표)

## 비만에 대해 과학적으로 되짚어본 책

원 제\_《人はなぜ太るのか - 肥満を科学する》  
 저 자\_오카다 마사히로(岡田正彦)  
 출판사\_이와나미쇼텐(岩波書店)

우리 신체 중에서 가장 많은 책이 나온 부분은 뇌나 심장처럼 단 1분도 없어서는 안 될 필수불가결한 장기가 아니라 제일 필요없다고 여겨지는 '살'이 아닐까? 살에 대한 책은 다이어트 방법을 비롯해 비만을 보는 인문사회적 시각이나 진화론적인 설명까지 실로 다양하게 나와 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아주 기본적인 의문을 건드린 책은 없지 않았나 싶다.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 누구나 머리에 슬쩍 떠올려 보는 의문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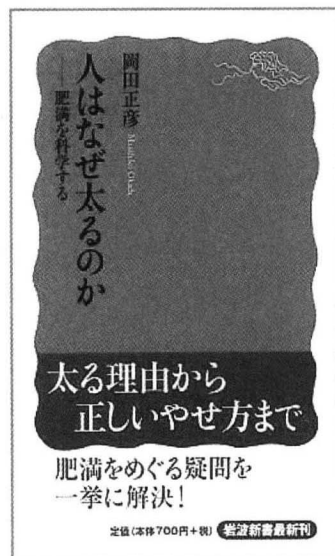
‘대체 왜 살이 찌지?’ ‘살지면 왜 건강에 나쁘다는 거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에 대해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살 빼는 방법만을 알고 싶어 할 테니, 지적 호기심만으로 비만에 대해 쓴 책이 눈에 띄지 않는 것은 시장원리로 볼 때 당연하다고 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사람은 왜 살찐까 - 비만을 과학하다》는 부제처럼 비만에 대해 과학적으로 되짚어본 책이다. 저자는 후기에서 단기 개인적 경험에 불과한 다이어트법 따위는 유효하기는커녕 때로는 유해하다고 지적하면서, “학술논문과 마찬가지로 새롭게, 정확하고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기 쉽게 쓰려고 했다. 특히 독자에게 잘못된 지식을 전하지 않도록 전심전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의학박사이며, 미국 학회지의 편집위원을 역임하는 등 정통 의학자인 저자의 자세가 벌써 수명복철을 앞두고 우르르 나오는 다이어트 책과는 다르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가.

실제로 이 책은 ‘그렇다더라’가 아니라 최신 역학조사 등을 근거에 두고 비만을 설명한다. 예를 들어, 남자는 당분 섭취로 인해 비만이 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은 반면에 여자는 지방 섭취로 살이 찌는 경우가 많다는 결과도 5년간 모은 집단 앙케트 조사 결과로 명확하게 밝혀 놓는다.

다이어트 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안 될 거야 없겠지만, 글리세믹 지수나 아디포넥틴이니 하는 어려운 말이 툭툭 튀어나오는 것을 보면 역시 ‘비실용적인 책’이다. 이와나미 문고로서가 아니라면 나올 수 있



었을까 하는 생각마저 든다.

80년의 역사를 가진 일본 최초의 문고본 이와나미 문고는, ‘저렴한 가격의 책을 만들어 교양과 지식을 일반인에게 널리 보급하고자 간행하였다’는 취지가 지금도 책 뒤에 실려 있는 일본을 대표하는 교양 문고다. 고전문학은 물론 인문이나 이공계에 대해서도 전문가에 의한 교양서적이 출간되고 있는데, 표지도 똑같고(책등의 색깔로 내용 분류가 되므로 조금 다르다면 다르다) 값도 싸지만 그 내용의 품질은 정평이 있다. 그래서 당장 도움은 안 되더라도 지적 윤희로서, 또한 교양으로서 풍부한 읽을거리를 제공하는 이와나미 문고는 ‘이와나미 문화’라는 말을 만들어 냈을 정도다.

어쨌거나, 살 뺄 계획같은 게 없어도 비만에 대해 과학적으로 읽어보는 것은 생각보다 재미있다. 이른바 상식으로 알고 있던 바가 깨져나가는 느낌, 주위들은 잡다한 지식들이 하나로 꿰어는 느낌이 든다. 우리나라에서는 좀처럼 나오지 않는 이공계 교양서를 읽는 즐거움이다.

끝으로 다이어트에 박식한 분들이라면 알고 있을 테지만, 그러면서도 외면하고 싶어 하는(?) 사실을 책에서 뽑아 소개해 보겠다.

미국 연방통상위원회에서는 건강기구 등의 과장광고에 소비자가 속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고 한다.

- 땀을 흘리지 않고 단기간에 살을 빼는 기구나 방법은 없다.
- 운동하지 않고 운동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는 없다.
- 특정 부분의 지방만 연소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경력마시지로 얼굴을 작게 만드니, 첨단 기구로 뱃살만 빼주니 하는 광고를 믿고 돈을 쓴 사람들은 이 책을 읽고 싶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

글\_윤덕주(번역가, (주)엔북 대표)